

중년남성 대상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평등한 부부관계 정립을 목적으로 -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for
Middle-Aged Man - To establish equal relation between a couple -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김 양 호 · 배 선 희 · 송 말 희

Korean Institute of Family Counselling and Education
Research Fellow : Kim, Yangho · Bae, Sunhee · Song, Malhee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 |
| II. 프로그램 개발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프로그램 목표 및 구성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evaluate family life education for middle-aged man. We developed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for man consisting of 4 sessions, which is based on the system theory and strong family perspective. The program was designed to contribute to making sound family culture and more to stabilizing society in order that the middle-aged man in Korea should intend to make more equal relation between a couple by breaking from the sex-typed identity and recognizing androgyny.

After implementing a program for 4 weeks, the quantity and quality evaluation revealed that the program made the middle-aged man have a chance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ir family, especially the need to respect wife, to reflect family role performance and to learn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between a couple.

◆ key word: 중년남성, 평등부부,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I. 문제제기

부부관계의 질은 자녀의 사회화와 가족 전체의 안정 나아가 사회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21세기 정보화 사회로의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부관계는 여전히 전통적인 위계구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가족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이 새로운 가족문화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잠재력을 인정해주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평등'을 지향해야만 한다.

평등한 부부관계는 남녀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 중심이 아닌 '우리 모두'가 중심인 건전한 가족문화를 이끌게 된다. 즉 부부관계의 평등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부부 상을 심어 줄뿐 아니라, 자녀들의 양성적 사회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2세인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곧 우리 사회에 만연된 권위주의를 해소하는 첩경이며, 사회전체의 평등을 구현하는 첫걸음이 된다.

그러나 평등부부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은 남성들의 가부장적 가족의식이다. 여성들이 비교적 평등적 가족의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남성들은 여전히 가부장적 가족의식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부부간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차이가 부부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곽배희, 1994; 이효재, 1997; 한경혜, 1994), 그 결과 부부관계의 질이 저하된다(손유기·이정우, 1999; 정민자, 1996). 남편의 가사노동 투여시간이 길수록, 가사노동의 성별분업화 정도가 낮을수록, 남편의 성역할 관념이 비전통적일수록 아내들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반면 의사결정에서 아내가 불공평하다고 인지하는 아내들은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자, 1994).

따라서 평등한 부부관계 나아가 건강가족을 이룩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가장' 역할은 열심히 수행했지만 부부관계에서 진정한 평등성과 상호성의 원리를 의식하지 못했던 남성들에게 자발적인 협동과 유연한 적응을 위한 재사회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남성들의 가족 내에서의 역할수행의 변화를 위해서는 남성들의 의식전환이 전제조건이 되는데, 이는 현 상황에서 자신의

의 모습뿐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역정, 그들이 지니고 있는 여성관, 가족관 등에 대한 숙고를 통해 여성인격의 존중, 가족관계의 핵심인 부부관계의 중요성, 평등한 부부관계, 가족의 소중함 등을 일깨울 수 있는 남성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자신'과 '여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남성들의 의식전환을 도와 그들이 평등한 부부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을 기혼남성들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밝혀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대상의 프로그램 개발, 실시, 평가의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전무하였던 남성대상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개발과 보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II. 프로그램 개발배경

1. 평등부부의 개념

여성의 인간화에 대한 남성의 공감에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열린 부부관계는 곧 평등한 부부관계를 지향하게 된다. 여성의 인간화란 전통적 질서와 가치관의 체계에서 부차적 위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위치를 인정하여, 여성도 인간으로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92). 이는 곧 부부의 인격적 존중에 그 뿌리를 두는 평등한 부부관계로 이어진다.

게일 킴벌(1988)은 평등부부를 "남편과 아내가 돈벌이, 집안일, 육아, 의사결정을 분담하는 부부"로, 즉 남편과 아내가 서로 평등한 권위 또는 권력을 소유하며 책임도 함께 지는 결혼관계로 정의하였다. 그는 여가·취미생활을 공유하고, 대화를 통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가장 좋은 친구로 생각하며, 융통성 있고 자발적인 가사노동·육아의 분담을 통해 자녀들의 양성적 인간으로의 사회화를 촉진시키는 것 등을 평등부부의 특징으로 설명하였다.

박민자(1992)는 평등부부에 대한 기혼여성들의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의사결정권, 경제권 등의 권리와, 가사노동, 육아 등에서의 책임의 공유를 중요한 기

준으로 들고있었다.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인격존중'을 가장 강조하였으며,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무제(2)장관실(1994)에서 우리 가정에 남아 있는 남녀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실시한 평등부부에 관한 조사에서도 평등부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가정 내 대소사에 대한 의사결정권' '부부간의 대화' 등 의사소통과 의사결정면에서의 평등(53.7%)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꼽고 있다.

한편 UN(1993)에서 제시한 동반자적 가족(partnership family)은 위계질서에 기초를 둔 억압적·권위적 가족(dominating family)의 반대개념으로, 부부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점에서 평등부부와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1994년 UN이 정한 세계가족의 해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평등부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정무제(2)장관실에서 평등부부 상을 수상하고 있다. 1회 평등부부 상을 수상한 김성호·김정환(1995)은 특히 모든 집안 일에서 공평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아내에 대한 전근대적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결국 평등부부는 가정 내 모든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며,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인격체로서 존중하여 상하관계가 아닌 1:1의 동등한 관계를 이룩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부부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평등부부는 부부가 성별분업체제에서 벗어나 두 개의 세계를 접할 수 있음으로써, 스스로를 확장시키는 과정이다(김화중, 1997). 즉 남성과 여성의 역할공유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김양호, 1997), 실제로 부부가 역할을 많이 공유할 수록 부부관계의 질이 높으며 결혼만족도도 높아져(정민자, 1996) 남녀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그리하여 가정의 생산성 향상을 이룩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이끈다.

2. 평등한 부부관계를 저해하는 요인

1) 남성의 의식적 측면

(1) 성고정관념과 왜곡된 남성다움

전통적인 성고정관념은, 성별이 아닌 개인의 자질

과 능력에 따라 융통성을 수용하는 근대적인 성의식에 비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먼저 남성에게는 첫째, 가족 부양책임을 일생동안 짊어지게 하여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수행을 어렵게 만든다. 둘째, 건강한 정서발달을 저해한다. 예를 들어 남성은 여성처럼 울거나 두려움을 나타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자연스런 감정표출을 억제하게 한다. 셋째, 남성다움에서 벗어난 남성들을 불행하거나 특수한 사람으로 격리시킨다. 또한 여성에게는 첫째, 자신의 역할을 아내와 어머니 역할로만 규정하여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하게 한다. 둘째, 학업 또는 직업적 성취욕구의 저하를 가져온다. 셋째, 자기평가가 낮아져 자아존중감을 낮춘다(한국여성연구회, 1997). 이와 같이 전통적 성고정관념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성고정관념에 의해 형성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은 남성에게는 남성 콤플렉스를 여성에게는 여성 콤플렉스를 만들어 낸다(여성을 위한 모임, 1994, 1992). 이러한 콤플렉스는 개인의 의식과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남자는 사회에서 성공해야 한다', '남자는 큰 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입받은 남성들은 사내대장부 콤플렉스에 빠지게 된다. 사내대장부 콤플렉스는 남성다움의 대표적 징표로서 남성들을 일에 치중하게 만들었다. 그에 따라 가족에서는 남편, 아버지 자리가 비게 되었고 그 결과 가족기능이 약해지고 심지어 가족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남성들의 의식 속에서 이러한 왜곡된 남성다움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가족 안에서 건강한 남편·아버지의 모습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남성들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때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2) 성역할 태도와 남성의 가족역할 수행

우리사회는 여전히 가부장제 사회로서 남녀 차별화와 역할의 이분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아들과 딸의 역할구분에서부터 남편과 아내의 역할구분이 불평등하게 구조화되어 있다. 그리하여 남성은 사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도맡아 하였으며 여성은 남성에게 예속되어 그의 보호를 받으며 가정에서 가사

노동에 주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 따라서 남성들은 가족역할 수행을 자신의 역할 밖으로 인식하여 소홀히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다. 남편들의 성역할 태도는 가족역할 수행에 중요한 영향 변수로서 많은 연구들(김양호, 1997; 송영숙, 1992; 조미환, 1996; 최수선, 1995; 허경옥, 1994)은 남편들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가족역할 수행 정도가 낮으며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가사노동과 여성 중심적인 일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남성이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아내와 전반적인 가족역할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희·김태현, 1989; Kamo, 1994).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남성들의 전통적 성역할 태도는 그들이 가족역할 수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게 만들었으며, 특히 부부간의 가족역할 공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한 가족기능을 방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남편이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일수록 남편과 아내의 결혼적용이 높음을 볼 때(임정빈·정혜정, 2000), 건강한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부부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성역할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2) 사회구조적 요인

남성의 가족역할 수행을 저해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는 그들의 직업을 들 수 있다.

Small과 Riley(1990)는 남성의 직업역할이 가족역할을 방해하는 과정을 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남성의 근무시간은 가족역할 수행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을 감소시키고, 직업역할의 몰입은 가족역할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며, 일로 인한 피로는 가족역할 수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일/가족 갈등을 유발시키는 직업특성으로 긴 근무시간을 들 수 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의 통계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주당 50시간(1999년 기준)으로 ILO회원국 75개국 중 7번째로 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00년). 이렇게 긴 근무시간은 가족구성원들의 대면적 상호작용을 줄어들게 함으로써 친밀성과 우애성을 감소시킨다. 긴 근무시간 외에도 퇴근 후 일의 연장으로 직장관련 사람들

과 보내는 시간이 매우 긴데, 이것은 남성이 가족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 남자 사원의 취업과 가족생활의 관련성에 관한 사례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써 생기는 부부간 및 부모-자녀간의 긴장이 매우 심각함을 보고하고 있다(이숙현, 1995).

한편 근무시간의 융통성 역시 일/가족 갈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요인이다. 즉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전문직 남성의 경우 일/가족 역할갈등이 감소됨을 보고하고 있다(O'Neil & Greenberg, 1994). Warren과 Johnson(1995)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근무일정을 융통성 있게 조정해 주거나, 혹은 비공식적으로 휴가를 내줄 경우 일/가족갈등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남성들의 긴 근무시간, 일의 융통성 부족으로 인한 역할긴장은 남성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약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남성의 가족역할 수행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애들이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Ⅲ. 프로그램 목표 및 구성

1. 프로그램의 목표

본 프로그램은 부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분석을 하는 체계이론의 입장과, 가족의 병리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이 측면에 초점을 두는 건강가족적 관점을 취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우리사회의 중년남성들이 성에 대한 왜곡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보다 평등한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것을 도와 건강한 가족문화, 나아가 사회의 안정과 발달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왜곡된 남성다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둘째, 여성과 아줌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아내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한다.

셋째, 가족 내에서의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남성의 가족역할 수행을 증진시킨다.

넷째, 평등부부로의 지향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건강한 신 가족문화를 이룩한다.

2. 프로그램의 구성

1) 1단계 : 남성, 자신에 대한 이해 - '남성자신 돌아보기'

- 목 표 1.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 설명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2. 참석자들간에 rapport를 형성하도록 한다.
 3. 남성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돕는다.

강 의	활 동
1.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 설명 4회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설명과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한다.	1. 사전검사 2. 이름표 및 신상카드 만들기 3. 자기소개 시간
2. 우리사회에서의 왜곡된 남성다움이란?	4. '자신의 남성다움 알아보기' 당신은 언제 '남자답다' 라고 생각하는가? '남성다움' 가치관 경매
3.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새로운 남성상	5. '남성으로서의 삶의 득과 실' 에 대한 토론 「일과 가정」비디오 시청 '남성으로서의 삶' 그려보기
종 결 1. 잘못된 남성다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므로써, 새로운 남성상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2. 일일평가 3. 과제 : '아줌마' 하면 연상되는 것 3가지 이상 적어오기	
준비물 사전검사지, 이름표, 신상카드, 활동지, 비디오테이프, 일일평가지, 녹음기	

2) 2단계 : 여성에 대한 이해 - '몰랐던 나의 반쪽 알기'

- 목 표 1. 여성과 아줌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는다.
 2. 가족 안에서 여성(아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한다.

강 의	활 동
1. '여성 바로 보기' 1)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의 모습 2)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1. '내가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여성은 _____ 하다. 2. '나는 아내가 어떤 여성이길 원하는가?' 아내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바람을 쓰고 이야기하도록 한다.
2. 또 하나의 여성, '아줌마 바로 보기' 1) 아줌마에 대한 고정관념 2) 가족 안에서의 아내 역할의 중요성	3.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줌마 이미지' 아줌마는 _____ 하다. 「아줌마」비디오 시청 4. 가족역할 가치평가 「어떤 부부의 역할혁명」비디오 시청
종 결 1. 여성과 아줌마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해 봄으로써 아내와의 인격적 관계 형성을 촉진토록 한다. 2. 일일평가 3. 과제 : 아빠에게 편지쓰기 / 아내를 통한 '남편역할 평가지' 작성해 오기	
준비물 활동지, 비디오테이프, 일일평가지, 녹음기	

3) 3단계 : 가족안에서의 나 -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은?'

- 목 표 1. 결혼과 가족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
 2. 가족 내에서의 부부역할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3. 남성이 자신의 가족역할수행 정도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강 의	활 동
1. 결혼과 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결혼과 가족에 대한 신화 깨기 각각의 신화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한다.
2. 현대사회에서 부부역할 공유의 중요성	2. 가족역할 수행 검토 2-1 남성의 가족역할 수행 검토 가족 내에서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역할과 가장 적게 수행하는 역할을 알아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한다.
3. 한국사회에서의 남성의 가족역할 수행 실태와 문제점	2-2. 남성이 평가한 가족역할 수행 정도와, 지난 주 과제였던 아내가 평가한 남성의 가족역할 수행 정도를 비교하여 도표화 한 후, 참석자들이 돌아 가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2-3. '내가 바라는 아빠의 모습' 에 대한 느낌 나누기

- 종 결 1. 남성의 가족역할 수행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킨다.
 2. 일일평가
 3. 과제 : <활동2>의 자신과 아내의 역할평가 중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정해서 수행해 보기

준비물 활동지, 일일평가지, 녹음기

4) 4단계 : 우리 부부 함께 가기 - '따로 또 함께 가는 멋진 여행'

- 목 표 1. 평등부부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부부관계의 개선을 돕는다.
 2.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새로운 남성상, 부부관계, 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건강한 신 가족문화를 이룩하도록 한다.

강 의	활 동
도입 : 지난 주 과제에 대한 feedback	1. '가족역할 수행'에 대한 느낌 나누기 3단계 과제에 대한 느낌을 나눈다.
1. 평등부부란? 1) 평등부부의 중요성 2) 평등부부의 요소 2. 신 가족문화의 창조	2. 평등부부상 모색해 보기 「평등부부」비디오를 시청한 후 평등한 부부관계를 위한 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한다. 3. 평등부부가 되기 위한 나의 각오 : 서약서 쓰기

- 종 결 1. 본 프로그램의 목표를 다시 한번 인식시킨다.
 2. 사후평가
 3. 참석자들에게 교육전반에 대한 느낌과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등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4.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를 서로 나눈다.

준비물 사후평가지, 활동지, 비디오테이프, 일일평가지, 서약서용지, 편지봉투, 녹음기

IV.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

1. 프로그램 실시

1) 프로그램 실시 대상

본 교육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중년남성들로 그 대상을 제한하였다. 이들은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자란 마지막 세대이지만 근대적 교육을 받은 세대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의식의 전환과 행동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교육대상은 일간지와 지역신문의 프로그램 홍보기사와, 연구원들의 홍보를 병행하여 모집하였다.

프로그램 각 단계별 참석자 수는 1단계 14명, 2단계 10명, 3단계 6명, 4단계 9명이었다.

2) 프로그램 실시방법

프로그램은 방배동에 위치한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에서 2000년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30~10:00에 실시하였다.

각 단계마다 강의내용과 활동, 평가로 이루어진 교재를 제공하였으며, 교재는 단계가 끝난 후 평가를 위해 다시 회수하였다.

교육대상이 성인인 점을 감안하여 교육자에 의한 강의중심보다는 참석자들의 토론과 활동중심으로 단계를 이끌어 갔으며,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OHP, video 등을 이용하였다.

각 단계를 개발한 연구원이 각 단계의 교육자가 되었으며 다음 단계 교육자가 보조자로 참석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실시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위해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어 매 단계를 녹음하였다.

2. 프로그램 평가

1) 평가방법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4단계 모두 참석했던 5명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종료 일주일 후 면접을 통한 질적 평가¹⁾를 실시하였으며, 각각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2) 평가도구

(1) 남성 콤플렉스

여성을 위한 모임(1994)에서 개발한 20문항의 사내대장부 콤플렉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남성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남녀를 대등한 입장에서 이해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여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는 삶을 추구함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참석자들의 남성다움에 대한 의식변화를 측정해 보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으로 $\alpha = .76$ 이었다.

(2) 부부역할 수행

이광규 등(1996)의 가족간 기능수행 측정도구와 홍은희 등(1997)의 평등부부 측정도구에서 본 교육프로그램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팀 4인이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평등한 부부역할 수행을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자들의 가족 내에서의 행동변화를 밝혀보고자 이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질적 평가를 위한 질문내용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의 단계나 활동, 프로그램 참석을 통해 자신과 부부관계, 가족에 대해 새

1) First와 Way(1995)가 지적했듯이 1:1 면접을 통한 질적 평가는 양적 평가로는 밝힐 수 없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밝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질적 평가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에 중요한 자료도 얻을 수 있다. 특히 단기간에 실시된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양적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질적 평가를 실시하여 그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모든 점들을 파악하여 교육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롭게 깨닫거나 느낀 점, 부부관계나 가족을 위한 앞으로의 다짐, 프로그램 자체의 미비점과 앞으로의 남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바람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하였다.

3) 평가대상자의 특성

본 프로그램 1단계와 4단계에 각각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양 단계에 모두 참여한 참석자 8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들의 일반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도와 행동측면에서의 변화를 측정한 부부역할 수행 척도에서 점수의 변화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각각 한 명씩을 제외하고는 모두 긍정적인 측면으로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

2) 질적 평가

(1)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의 단계나 활동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1단계]의 <활동4 : 남성다움 알아보기>를 가장 인상 깊은 활동으로 들면서 “남성들이 지니고 있는 심리를 잘 짚었다”, “남성들이 평

<표 1> 평가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연령	결혼지속 연수	직업	결혼 유형	아내의 직업 유무	가족 성원	결혼만족도 (10점 만점)
A	40세	14년	건설업	중매혼	전업주부	2남	7점
B	41세	11년	광고업	절충형	전업주부	2남	3점
C	35세	8년	회사원	연애혼	전업주부	1남 1여	8점
D	40세	13년	회사원	연애혼	취업주부	1여, 장모	7점
E	41세	11년	자영업	연애혼	취업주부	1여	
F	43세	14년	회사원	연애혼	전업주부	2남	8점
G	43세	8년	교수	연애혼	취업주부	2남	
H	41세	14년	자영업	중매혼	전업주부	1남 1여	8점

3. 평가결과

1) 사전·사후검사 결과분석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에 남성 콤플렉스 척도와 부부역할 수행정도 측정도구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 시 남성 콤플렉스 척도에서는 점수의 하락이, 부부역할 수행정도는 점수의 상승이 있을 때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점수의 상승과 하락 폭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긴 하지만 F와 H를 제외한 참석자들이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점수의 변화를 보여 본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목표가 어느 정도는 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식측면에서의 변화를 측정한 남성 콤플렉스 척

소에 느끼고 있던 부분을 잘 건드려줬다”, “남성들이 사회나 자기 스스로가 만든 틀(창살)속에 갇혀있음을 알게 되었다”와 같은 반응들을 보였다. 특히 남성 콤플렉스를 만화로 표현한 것에 대해 공통적으로 “매우 재미있고 신선하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시각적 자료의 이용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3단계]의 <활동1 : 결혼과 가족에 대한 신화 깨기>, <활동2 : 가족역할 수행 검토>에도 관심을 보였다. <활동1>을 통해서 참석자들간에 결혼과 가족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활동2>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이 가사노동이나 부부간의 성 및 애정의 수행정도가 다른 참석자들에 비해 낮은 것에 대해 자신이 가족역할을 너무 수행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표 2〉 프로그램 참석자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척도	남성 콤플렉스			부부역할 수행		
	사전	사후	변화양상	사전	사후	변화양상
A	56	48	- 9	59	72	+ 13
B	40	37	- 3	67	68	+ 1
C	42	39	- 3	77	85	+ 8
D	48	45	- 3	81	88	+ 7
E	54	48	- 6	70	78	+ 8
F	53	54	+ 1	78	79	+ 1
G	52	49	- 3	80	83	+ 3
H	53	51	- 2	75	72	- 3

* 2회 이상 불참한 참석자는 제외하였음.

* 남성 콤플렉스 척도는 점수의 하락이, 부부역할 수행은 점수의 상승이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함.

특히 그림을 이용하여 참석자들의 가족역할 수행 정도와 부인이 평가한 남편의 가족역할 수행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참석자들이 부부간에 충분한 대화가 없었음을 인식하고 부부간 대화의 중요성을 깨닫는 장이 되었다.

마지막 [4단계]의 〈활동3 : 평등부부가 되기 위한 나의 각오〉를 인상 깊게 지적한 참석자도 있었는데, “편지를 쓴 자체만으로도 다시 한번 아내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아주 좋았고 편지를 받은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했다”고 표현했다.

(2)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느낀 점

본 프로그램 참석을 통해 참석자들 대부분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왜곡된 남성다움으로 인해 많은 부담감을 안고 정신없이 살아 온 중년남성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기회를 제공하였던 점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 이는 “중년남성으로서 나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남성이 슈퍼맨으로서 살아가기에 어려웠던 점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는 반응에서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가족, 특히 ‘아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들을 제시함으로써 평등부부의 주요 요소인 아내의 인격존중을 위한 기초를 다진 시간이었다고 사료된다. “아내나 주부에 대해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

가 되었다”, “아내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올랐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가족이나 아내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등의 반응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 ‘가족’ 중심의 사고를 더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고민하고 있던 역할공유, 역할평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반응을 통해서, 본 프로그램이 이미 부부간의 ‘평등’에 대해 많은 생각을 지녔던 참석자들에게는 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장(場)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평등한 성의식을 가져 가족역할을 이미 많이 실천하고 있는 참석자들은 자신의 내면세계를 돌아보는 기회가 된 반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져 가족역할을 별로 수행하지 않았던 참석자들은 가사노동이나 성 및 애정영역 등에서 다른 참석자들의 높은 수행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닫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부부관계나 가족을 위한 앞으로의 다짐

[3단계]의 〈활동2 : 가족역할 수행 검토〉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다른 참석자들의 가족역할 수행 정도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고쳐야죠”, “열심히 해야죠”라는 반응이 많았다.

또한 결혼생활은 사랑만으로 불가능하고 인격적으

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앞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하였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평등부부의 핵심 요소인 아내의 존중에 대한 깊은 인식과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새롭게 느낌으로써 평등부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된다.

(4) 프로그램 운영과정에 대한 의견

참석자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단계]의 <활동4 : 자신의 남성다움 알아 보기>에서 만화를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인 점, 비디오 테이프를 사용하여 교육목표를 확실하게 인식시켜 준 점, 일방적인 강의보다 활동을 통해 참석자들간에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점, 소수 인원으로 진행한 점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반면 4단계로 진행된 본 프로그램의 단계가 너무 짧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남성자신을 제대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과, 부부관계 향상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이나 갈등해결 방식을 위한 단계들이 추가되기를 희망했다. 그리고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고정관념이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는 내용도 첨가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특히 [1단계]에서 더 많이 자신의 얘기를 토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필요성을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지적하였다.

한편 프로그램 교육자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 교육자가 남성일 경우 훨씬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을 것이라는 견해와 각 단계의 특성을 살려서 남성과 여성이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도 있었는데, 이는 추후 프로그램 실시 시 반영할 필요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종합적으로 참석자들이 “형태는 가족을 유지하지만 내면은 깨진 가족들이 많은 이 시대에 가정회복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남성들이 가족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계속 개발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참석자들 중 몇 사람은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본 프로그램은 중년남성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웠던 매우 의미 있는 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통해서 교육적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가족과 사회는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 하므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건강한 가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직업역할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어 여성과 분리된 경험을 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남성들의 사고는 가족 내의 민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우리사회의 중년남성들이 성에 대한 왜곡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양성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통해 보다 평등한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것을 도와 건강한 가족문화, 나아가 사회의 안정과 발달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본 교육프로그램은 4단계로 구성되었다. 1단계(남성자신 돌아보기)와 2단계(몰랐던 나의 반쪽 알기)는 자신과 아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인격적인 부부관계 형성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3단계(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은?)와 4단계(따로 또 함께 가는 멋진 여행)에서는 남성 자신의 가족역할 수행 정도를 파악하고 가족 내에서의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만이 아닌 가족공동의 삶의 터전을 이룩하고 부부 각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평등부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평가는 질문지를 이용한 양적 평가와 면접을 통한 질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남성 콤플렉스 척도와 부부역할 수행 척도를 이용한 양적 평가결과, 참석자들 대부분은 남성 콤플렉스에서는 점수의 하락을 부부역할 수행정도에서는 점수의 상승을 보여주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질적 평가에서는 첫째, 본 프로그램 참석을 통해 참석자들 대부분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왜곡된 남성다움으로 인해 많은 부담감을 안고 살아왔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던 점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 둘째, 가족, 특히 ‘아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자신의 가족역

할 수행에 대한 반성과 부부관계에서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상의 양적·질적 평가결과를 통해 볼 때 본 프로그램의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프로그램을 교육받은 참석자들은 평등부부의 핵심 요소인 아내의 존중에 대한 깊은 인식과 가족의 소중함을 새롭게 느낌으로써 평등부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남성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성들의 의식은 직업, 연령, 출신지역,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이하므로 교육자가 첫 단계에서 참석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융통성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성의 의식변화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남편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지양하고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북돋우는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평등부부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성평등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세를 출산하게 될 신혼기 부부를 대상으로 평등부부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새로운 세대들에게 바람직한 역할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남성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하더라도 자유롭게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개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남성들의 근무시간, 근무지 선택의 융통성 등의 직업체계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프로그램과 같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남성대상 교육프로그램들이 기업에서 사원연수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남성들이 일 중심에서 벗어나 일과 가족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직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평등부부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보다

많은 정책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게일 김벌(1998). 평등한 부부. 한국여성개발원.
 광배회 외 공저(1994). 상담소 창구를 통해 본 가정문제 진단. 위기에 선 가족. 다산출판사. 71-108.
 김선호·김정한(1995). 평등부부 만들기, 사계절.
 김양호(1997). 맞벌이 가족 남성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김화중(1997). 건강한 부부관계를 엮는 작은 지혜. 돌과 꽃.
 박민자(1992). 부부관계의 평등성.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71-109.
 석드보라·이기영(1999). 부부의 가사노동 자기역할 인식과 사회화저항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171-185.
 손유기·이정우(1999). 남편의 가정 내 역할인지와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1-14.
 송영숙(1992). 취업주부 가족의 성별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중심으로-. 효성여대 석사학위논문.
 여성을 위한 모임(1994). 일곱 가지 남성콤플렉스. 현암사.
 _____ (1992). 일곱 가지 여성콤플렉스. 현암사.
 우리사회연구학회(1998). 현대사회와 여성. 정림사.
 이광규 외 4인(1996). 가족의 관계역동성과 문제인식. 집문당.
 이성희·김태현(1989). 성역할태도에 따른 부부간의 가족역할분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09-125.
 이숙현(1995). 남성의 취업과 가족상호작용: 대기업 사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9(여름호), 271-289.
 이효재(1997). 한국사회의 남성이데올로기,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남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9-30.

- 임정빈 · 정혜정(2000). *성역할과 여성*. 학지사.
- 정무장관(제2)실(1994). 민주적 가족관계 정립을 위한 ‘평등한 부부’ 토론회. 정무장관 제2실.
- 정민자(1996). 평등한 부부관계를 위하여, 한국가족관계학회 편. *한국가족의 현재와 미래*. 하우, 103-124.
- 조미환(1996). 기혼남녀의 가사노동 참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조미환 · 임정빈(1997).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369-386.
- 최수선(1995).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한경혜(1994). 동반자적 부부관계 정립을 위한 소고.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가을호, 통권 44호*.
- 한국여성개발원(1992). *평등한 부부*. 교육자료 300-20.
- 한국여성연구회(1997). *여성학 강의 -한국 여성현실의 이해-*. 동녘.
- 허경옥(1994). 부의 자녀양육에의 참여시간 결정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90-105.
- 홍성래(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동아일보. 2000년 5월 2일자.
- Kamo, Y.(1994). Determinants of household division of labor - resources, power and ideology. *Journal of Family Issues* 9(2), 177-200.
- O’Neil & Greenberger(1994). Patterns of Commitment to Work and Parentings : Implications for Role Strai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6, 101-118.
- Small, S. & Riley, D.(1990). Toward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spillover into family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49-761.
- Warren, J. A., & Johnson, P. J.(1995). The impact of work palace support on work-family role strain. *Family Relations* 44, 163-169.

참고 비디오

- 여성개발원. *평등부부 이야기*, 1990년.
- KBS. 2000년 그 변화의 물결, 일과 가정 -아버지의 고민-, 2000년.
- KBS. 어느 가정의 혁명, 1999. 5. 11.
- KBS. 아줌마의 반란, 1999. 11. 18.
- MBC. 아줌마 -우리들의 자화상-, 1999. 4. 15.